



진리만이 세상의 아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회변혁운동과 함께 방랑생활

23년간 숲 속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밤하늘의 별을 이 불로 삼고, 너른 대지를 베개 삼아 살고 있는' 독일인 페터 노이야르(62). '거지성자'로 널리 알려진 그가 다시 한국의 불자들을 찾아왔다. 1999년과 2001년에 이어 세 번째 방한이다.

'아나기리카'(Anaganika, 팔리어로 '집없는 자'란 뜻)로 불리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15년 전부터 맨발로 다니 세가매진 발바닥이나 팔꿈치며 목둘레를 촘촘히 기워 놓은 스웨터도 아니었다. 그를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처음 본 사람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밝은 눈과 해맑은 얼굴이었다.

1941년 독일 라인란트팔츠에서 태어난 그는 기술대학에서 축방기술을 배우다가 입대, 해군에서 3년간 복무했다. 이후 2년간 제지 공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 유럽 신좌파 학생이 중심

이 된 사회변혁운동인 '68혁명'이 나자 프랑스로 건너갔다. 파리대학 집회에서 한 헝가리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가 2년 만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뜨자 방랑생활을 시작했다. 영국으로 건너가 불교사원에서 생활하던 그는 80년 독일로 돌아와 '돈 없이, 집 없이, 여자 없이 살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후 23년간 숲 속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고 낮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지내는 생활이 계속됐다. 나무 밑에서 태어나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나무 밑에서 밥을 설하다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의 삶을 닦기 위해서다.

새벽 4시 산책, 7시 도서관 출근, 저녁 9시 숲으로

"주변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독교적 사고로는 그 해결 방법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연히 키플링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김(Kimi)>을 읽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백암록> 등의 선어록을 읽기도 했지만, 선불교나 대승불교의 근본은 초기불교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뒤로는 초기불교 경전을 읽으며 불교의 근본원리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의 '집'은 독일 쾰른대학 앞의 숲이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뒤 호수 근처를 산책한다. 산책이 끝나면 근처 슈퍼마켓이나 비오라벤(무공해식품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흑빵과 시든 채소나 반쯤 썩은 과일 등을 얻어 와 7시쯤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치면 바로 쾰른대학 중앙도서관으로 '출근' 한다. 대학 측의 배려로 그는 이곳

집 짓는 것 자연과의 연계 끊는 행위 무소유의 삶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에서 거의 모든 책을 열람할 수 있다. 도서관이 문을 닫는 저녁 9시, 그도 숲으로 돌아간다.

그는 오랜 기간 노숙생활을 하고 있지만, 큰 병을 앓아 본 적은 없다. 고작 몇 년에 한두 번 감기에 걸리는 것이 그의 병력의 전부.

"사람들은 안락과 평안을 위해 집을 짓고 울타리를 세우지만, 그것은 자연과의 조화와 연계 끊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방어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벽과 옷 등이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죠. 자연과 차단되면 결국 몸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런 노숙 생활은 결국 '과거로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거지의 삶을 사는 것은 부처님이 모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고 '아나기리카'의 삶을 걸어간 것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만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으며,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자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 그가 말하는 '소유'란 어떤 의미일까?

경전 읽으면 마음 편해지고 지혜 얻게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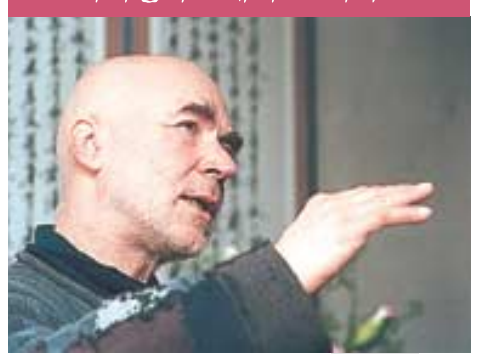
"소유란 자유가 아니라 자신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장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부자도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한 순간에 버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조그만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기도 합니다. 결국 소유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끊고 벗어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집착을 끊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23년간 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온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고통에서의 해방'이다.

"노숙생활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몸의 움직임과 느낌, 마음, 다르마(法)에 의식을 집중하여 순수한 관찰을 계속하는 것은, 나 자신을 수련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집을 버리고 거지에서 생활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놀라운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글= 여수영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



曹溪宗 第九代 宗正
老天堂 月下 大宗師

宗團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12월 4일 涅槃하신 曹溪宗 第九代 宗正이시며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이신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종단장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을 직접 찾아와 주신 중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조전 등으로 조위를 표해주시는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울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佛紀 2547년 12월 10日

老天堂 月下 大宗師 49齋 日程

49재	장 소	일 시	연락처	비 고
초재	통도사 설법전	12월 10일 (11/17) 10:00시	055-382-7182 055-382-7186	
2재	"	12월 17일 (11/24) 10:00시	"	
3재	"	12월 24일 (12/ 2) 10:00시	"	
4재	"	12월 31일 (12/ 9) 10:00시	"	
5재	"	1월 7일 (12/16) 10:00시	"	
6재	"	1월 14일 (12/23) 10:00시	"	막재의 의전행사를 이때 불행케 됩니다.
49재	"	1월 21일 (12/30) 10:00시	"	

曹溪宗 宗團葬 葬儀委員會 靈鷲叢林 通度寺 老天堂 月下 大宗師 門徒 一同